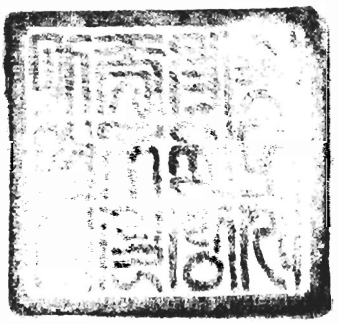
保健所 實務指導担當者
워샵 報告書

1979. 12

家 族 計 劃 研 究 院



目　　次

第 1 章　序　論 ——— 3

1. 背　景 ——— 3

2. 目　的 ——— 4

3. 方　法 ——— 4

第 2 章　主　題 ——— 5

1. 事業管理　指導監督 ——— 5

2. 保健要員의　資質向上 ——— 23

3. 保健要員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의　利用과 普及 ——— 39

第 3 章　討　議 ——— 61

第 4 章　結　論 (要約) ——— 66

附　錄 ——— 69

參加者名单

웍 샵 프로그램

第1章 序 論

1. 背 景

1962年 以来 政府의 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은 그간 크게 出産率을 低下시켜 事業의 効果를 成功的으로 이끌고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그러나 이러한 出産率의 低下는 오직 家族計劃事業만에 依해 이루워 졌던것은 아니고 国家의 全般的인 発展에 따라 経済的으로 国民所得이 높아지고 教育水準이 上昇되는등 많은 社会 変遷을 가져오므로 結婚年齢이 높아지고 小子女 価値観이 確立되었다는 事実등에 힘 입은바 큰것이 事実이다. 그러나 家族計劃事業 自体의 業積은 決코 過少評価 될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간의 功이 至大하다함은 두말 할것 없다.

現在 全国에 配置되어 있는 保健要員의 数는 近 6,000 余名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各己 주어진 任務를 充実히 遂行하고 있으며 系統에 따라 多様하게 指導監督 体系가 発達되어 있다. 그러나 原来 家族計劃事業은 技術과 行政의 両面에 걸친 事業이어서 単調로운 事業이 아닌데다 더구나 政策的인 面에서 부터 나아가 夫婦間의 極히 内部的인 生活에 까지 미치고 있는등 그分野가 広範囲하고 多様하여 어려움에 直面하게 되는경우가 許多함을 알수있다. 事業의 成果를 為하여는 要員의 資質이 向上되고 指導監督 体制가 正確히 確立되어야 함은 勿論이며 따라서 訓練의 意義가 커지고 있는데 이때의 訓練은 비단 施設에 있어서의 特殊課程에 의한 訓練 뿐 아니라 業務遂行中의 指導監督에서 이루워지는 現地実務訓練의 比重도 결코

적지 않음을 알수 있게 한다.

本研究院의 担当業務인 保健所技術 支援事業을 위하여 一線要員들을 直接 指導監督 하도록 되어있는 家族計劃 專担指導員과 保健所의 先任指導員을 極히 적은 数의 規模로 묶아 関聯된 分野에 대한 問題点을 分析 検討하고 将来를 為한 方向을 模索하고자 過去에 前例없는 機会를 마련 한것이다.

2 目 的

保健所 技術支援事業의 方向과 内容을 協同模索하여 向後 事業計劃에 反映 이를 重点 支援하므로서 家族計劃 事業의 効果를 増大시키는데 있다.

3 方 法

市.道 家族計劃 專担指導員 11名과 各 市.道 산하 保健所의 家族計劃 先任指導員 11名 都合 22名을 세「구룹」으로 나누어 事前에 定해진 主題를 20일 前에 附与하여「웍샵」에서 発表 하도록 하였다.

同「웍샵」에는 保健社会部 및 家族計劃研究院 実務関係者 等 40余名이 参席 하였으며 主題発表에 이어 1, 2次 分科討議 全体討議의 順으로 2일간 実施하였다.

第 2 章　主　　題

1．主題 1：事業管理　指導監督

發表者：趙 南 黙，家族計劃研究院　評価部長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일선사업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시·도단위에는 가족계획전담 지도원을, 그리고 시·군·구단위에는 선임지도원을 사업조직에 포함하여 왔으며 그간 이들의 지도감독활동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된지 18년이란 긴 년륜이 흐른 상금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의 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되지 못하여 지도감독업무 자체의 효율성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가 중앙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중앙과 말단조직간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의사전달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업초기부터 도입된 기존의 사업통계제도나 이를 기초한 사업평가 자체가 모두 지도감독을 위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선사업 실무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사업수행에 얼마나 활용했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간의 지도감독업무가 어느정도로 효과있게 수행되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의 외적, 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설정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선단위의 지도감독업무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지도감독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분

명한 지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원고는 지도감독의 정의, 내용 및 방법을 약술하고 실재로 일선에서 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지도감독 지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지도감독의 개념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의 지도감독 기능은 타 공공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사업관계자와 말단조직의 사업실무자간에 의사소통을 연결해주는 중간계층의 사업조정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가족계획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획은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되고 실재의 사업수행은 하부행정단위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앙단위에서 시달된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이 말단조직인 읍·면·동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반면에 읍·면·동단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중앙의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하는 역활은 자연이 시·도 및 시·군·구 사업실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도감독업무는 통상 말단 조직의 사업수행과 직결되는 것이 통예이기 때문에 시·도단위에 있어서의 지도감독기능은 당연이 시·군·구 보건소단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지도감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문"이라는 용어와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문은 가족계획사업전반에 대한 방향제시나 의학, 교육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중앙단위의 사업조직이나 특수기관을 상대로 실시되는 것이며, 반면에 지도감독은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업운영활동에 국한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감독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족계획요원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활동방법이나 관련된 행동절차에 대하여 익숙하고 일선사업의 활동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지식만 겸비하면 되는 것이다.

지도감독자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행정적인 기능과 지원적인 기능으로 구별된다. 행정적인 기능은 일선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수행 되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피임약제기구의 공급, 각종보고 및 기록서식의 유지관리, 피임시술비의 지급등 모든 행정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지원적 기능이라함은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일선 가족계획요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수입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두가지 기능중 행정적인 기능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실무자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고 하급기관에 갈수록 지원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3. 선별적인 지도감독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선정은 관할지역내의 전체지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우선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

우 지도감독자의 시간적, 재정적인 한계성으로 실재로 관내 전체지역을 순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인적, 재정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종 보고자료에 기초한 문제점지역에 우선을 두고 실시하는 소위 선별적인 지도감독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읍면에서 보건소에 제출된 월말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던가, 루우프시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환자가 급격히 증가된 지역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위한 출장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족계획 연구원에서는 각시도에서 월별로 제출되는 사업통계월보를 기초로하여 각시·도, 시·군·구 보건소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시·도 및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분기별사업평가 결과표에는 전국의 보건소를 평점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양호한 지역, 보통인 지역, 부진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이유는 각시·도의 지도감독 실무자로 하여금 선별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별적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시·도는 보건소별로, 그리고 각 보건소는 읍·면·동별로 사업통계자료에 의한 월별평가결과에 의해서 문제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월별로 신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위한 현지출장은 상기 문제점지역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단지 사업이 양호한 지역보다는 부진한 지역에 보다 많은 회수의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관내지역의 출장회수는 지도감독자의 시간적 여유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시간적, 재정적 한계성으로 출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어서는 월별사업평가 결과를 송부하여 줌으로서 일선사업종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실적을 타 지역의 사업실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요원자신이 자체 평가에 의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4. 사업평가와 지도감독

일반적으로 사업평가는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중에서 하나를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가치기준과 비교함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지도감독자가 사업기획이나 운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평가와 지도감독기능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도감독자가 맡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업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겸비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의 사업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평가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의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말단조직의 요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예로서 가족계획사업에서는 피임방법별 피임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지표로서 피임지속년수(Couple years

of Protection)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지도감독자가 이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한가지 지표만으로도 기존 사업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평가방법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평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나 각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평가자료는 대부분이 사업통계월보, 피임수용자의 쿠폰, 기타 행정통계자료에서 수집될 수 있으며, 이들의 자료출처로 부터 가능한 평가지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사업통계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는 평가지표

평 가 지 표	자 료 출 처
1) 피임방법별목표 : 실적 (월별, 분기별)	월말보고서
2) 전년도 동기간중 대비실적 증감율	〃
3) 요원 1 인당 피임수용자수	〃
4) 요원 1 인당 피임지속년수	〃
5) 가임부인 천명당 피임지속년수	월말보고서 및 시군통계년감
6) 피임지속년수에 의한 목표 : 실적	월말보고서
7) 피임상담자 천명당 피임수용자수	〃
8) 가임부인 천명당 지정병의원수	월말보고서 및 시군통계년감
9) 요원 1 인당 관할 면적 및 대상자수	〃
10) 지정병의원별 피임보급실적	쿠 폰

평 가 지 표	자 료 출 처
11) 피임수용자의 평균연령 및 현존자녀수	쿠 폰
12) 인공유산후 피임수용자수	〃
13) 피임방법별, 지정병의원별 부작용 발생빈도	행 정 통 계

기존사업통계자료를 이용한 평가지표는 상기 이외에도 평가자가 평가하고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자의 관할지역의 사업을 비교 평가함에 있어서도 상기 평가지표중 1～3개를 선택만으로도 훌륭한 평가가 될 수 있다. 한예로 현재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각시·도로 부터 보건소별로 취합하여 제출되는 사업통계월보를 기초로 전국의 202개 보건소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첫째로 각 보건소에서는 활당된 피임방법별 목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피임방법별 목표대 실적을 평가지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둘째로 피임효과 측면에서 평균 몇개월의 피임을 그 지역의 대상부인 천명당 피임지속년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셋째로 요원의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요원 1인당 수용자수를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평가방법은 주로 활당된 목표달성에 치중한 평가방법이며, 만약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평가한다면 당연이 사후관리실적에 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통계자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단위의 지도감독자는 요원의 일일 업무 일지에 사후관리 실적을 기입토록하여 이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서 사후관리의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각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감독 실무자는 관할지역의 사업평가를 월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일선요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의욕을 촉발시키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5. 현지출장에 의한 사업진단

사업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할 자료도 현지 출장시에 사전계획에 의한 준비가 없이는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쉽게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과는 지역적여건, 요원의 자질, 지정병의원의 분포, 행정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등 여러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서는 사업부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존 사업통계월보에는 요원현황 및 피임방법별 실적 이외에는 다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원의 활동, 사후관리등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활동상황에 관하여는 현지확인에 의하여 점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지도감독자는 사전에 준비된 "사업현황점검표"에 의거 출장지역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진을 초래한 여러가지 요인을 스스로 발견하

고 이에 대한 처방을 신속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사업현황점검표"는 비단 부진지역뿐만 아니라 양호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업실적평가에서 나타난 양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문별 사업활동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자는 양호, 부진지역에 대한 진단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도감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단위의 지도감독자가 현지 지도감독시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표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들의 내용은 지도감독대상자(시·군·구 또는 읍·면), 및 도시·농촌지역에 따라서 조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현지출장을 통하여 "사업현황점검표"에 의한 사업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착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현지요원과의 대화보다는 각종 기록 및 보고대장의 확인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현지확인도 동시에 실시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감독용 사업현황점검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항 목	착 안 사 항
1. 요원관리 및 활동	1. 1. 요원현황 및 특성(연령, 교육정도 면허소지, 결혼유무 및 훈련이수유무등)

항 목	착 안 사 항
	1.2. 1년내전보 및 요원동태 상황
	1.3. 선임지도원의 월 15일이상 출장유무 및 주요내용
	1.4. 각급요원의 월 15일이상 계몽권장 현황
	1.5. 주별 및 월별 업무계획서 작성 유무
	1.6. 요원의 타업무 종사 유무
	1.7. 월례회의 개최 및 그 내용
	1.8. 각종기록 및 보고서식의 정리상황
	1) 가족계획등록부
	2) 수용자쿠폰(등록부와 비교검토후 현지확인 실시)
	3) 약제기구 공급·대장
	4) 리·동별 등록자명단
	5) 피임시술자 명단
	1.9. 가정건강기록부의 관리실태
	1.10. 각급요원의 근무상태 및 상벌상황
	1.11. 군간사의 근무실태 및 활용성
	1.12. 홍보교육자료의 배부 및 관리실태
2. 지역특성	2.1. 관할지역의 면적 및 대상부인수
	2.2. 새마을부녀회 현황 및 활용

항 목	착 안 사 항
	2.3. 피임방법별 지정병의원수
	2.4. 복강경 보유현황 및 관리
3. 사업실적분석	3.1. 관내 가족계획사업 현황 파악 유무
	3.2. 읍면단위 사업평가 실시 유무
	3.3. 부진지역에 대한 집중지도 유무
	3.4. 읍면단위 사업목표량 배정기준
	3.5. 피임방법별 수용성에 따른 목표량 조정유무
4. 사후관리현황	4.1. 피임수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4.2. 피임시술 중증환자 처리 상황
5. 기타사항	5.1. 보건소 및 읍면단위 행정관리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5.2. 요원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등 기타

6. 지도감독요령

본장에서는 각급단위의 지도감독자가 그들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방안에 관하여 약술하고저 한다.

6.1. 목표 대 실적평가

기존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량제도는 각 지역 주민의 기호도를 고려함이 없이 대상인구에 비례하여 피임방법별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각 지도감독자는 관할사업기관으로 부터 제출되는 사업통계월보를 기초하여 평가할 시에는 피임방법별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역과 부진한 지역을 구분하여 향후 피임방법별 목표량의 재조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피임방법별 실적평가 보다는 피임지속년수 (CyP) 에 의한 실적평가로 사업이 양호, 보통, 부진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관할지역의 사업실적을 전년도의 동기간중 실적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진한 결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감독의 수행으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6. 2. 요원의 일일업무보고서 검토

각급요원의 업무계획은 월별계획에 의거 수행되도록 선도되어야 한다. 즉 선임지 원은 월별계획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그리고 읍·면·동계몽원은 피임방법별 목표량보다는 가정방문을 실시할 대상지역, 대상자명단의 보완, 새마을부녀회의 지도계획등에 관한 월별계획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 후 월말에 가서는 계획한데로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즉 계획한데로 이들의 활동이 전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요원의 업무일지상에 쿠폰발급건수 및 상담건수와 월말사업실적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시는 그 원인이 요원의 계몽기술의 부족에서온 결과인지, 아니면 일일보고의 태만에서 야기된 결과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6 . 3 . 사후관리실태의 점검

새로운 피임수용자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이미 피임을 수용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피임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요원의 활동은 할당된 목표량의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사후관리업무를 매우 소홀히 취급하여 온것도 사실이고 실재로 각종 기록 및 보고서식에 사후관리에 관한 항목도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선임지도원은 각 요원의 업무일지에 사후관리 실적을 기입토록 하고 중증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시술병의원별로 집계하여 현저하게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은 병의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4 . 새마을부녀회 활용실태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읍·면계몽원의 책임은 새마을부녀회의 육성지도, 새마을 가정건강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협조,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피임약제기구의 보급등이다. 따라서 선임지도원은 읍·면계몽원과 부녀회와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는 각 읍·면별 부녀회의 활동상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읍·면요원의 일일업무일지에 부녀회의 조직현황, 인원, 부녀회개최회수 및 참석인원, 부녀회에서 보급된 피임약제기구의 수량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부녀회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활동이 부진한 부녀회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의 요원과 협회 군간사와의 협의하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6 . 5 . 지정병의원의 관리

보건소 선임지도원은 관내지역의 피임방법별 지정병의원의 실적을 집계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 관내지역에 추가의 지정병의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실적이 거이없는 병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배정한 복강경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난관수술 실적을 병의원별로 집계하여 실적이 부진한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6 . 요원관리

사업성과에 미치는 제반요인중 요원의 높은 이직율로 인하여 신규채용된 요원의 경험부족으로 파생되는 경우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감독자는 관할지역의 사업실적을 피임지속년수에 의한 방법으로 전년도 동기간중의 실적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결과가 요원의 빈번한 인사이동, 퇴직, 또는 요원의 자질저하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의 환경적여건 변동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결과가 요원의 자질저하나 경험부족에 의한 사업부진으로 파생되었다고 평가되었을 시에는 각급지도감독자는 이들 지역의 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지도감독자 스스로가 주입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의 훈련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6 . 7 . 지도감독업무의 처리

보건소 선임지도원이 수행한 모든 지도감독업무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존이 되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는 지역별

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지도감독 결과 보고서는 출장복명서에 그날의 활동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이다. 앞으로 지도감독업무를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상 지역별로 지도감독용 "화일"을 작성함으로서 지도감독자가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지도감독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시·군·구단위의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주요결과를 월말보고내용에 포함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함으로서 각시·도의 지도감독자가 관내 지역의 지도감독 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토대로 하여 시·군·구단위의 지도감독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6.8. 지도감독자의 역할

지도감독자는 일선요원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주입시켜주는 훈련관으로서, 그리고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도감독자는 일선요원과 함께 새로이 개발된 홍보교육자료의 내용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상호토의도 하고 요원의 업무량 할당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지도감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구하여 줄 뿐 아니라 현지 지도감독을 통하여 효과적인 요원활동방안의 제시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자는 일선요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사업의 운영을 개편하기 위한 제반 대책 중에서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일선요원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자는 일선요원이 맡은 업무를 계획한데로 훌륭이 수행했다고 평가되었을 시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요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반대로 요원의 사업성과가 매우 불만족한 요원에 대하여는 요원과 상호협의하여 그 원인을 찾고 이를 기초로 업무량을 조정해 주는 역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감독자가 그들이 맡은 업무를 원만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관내지역의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2．主題 2：保健要員의　資質向上

発表者：金 貞 泰，家族計劃研究院　訓練部長

1 . 가족계획요원의 역사적 배경

옛말에 "사람과 그릇은 있으면 있는데로 쓰인다". 는 말이 있다. 일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不足하게 마련이란 뜻이다. 하물며 特殊한 目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한다면 반드시 일손이 必要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1962년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推進시키면서 그 일꾼으로 가족계획요원을 양성하게 되었고 그 일의 性格이 夫婦의 性生活 특히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더욱 집안속 깊숙히 숨어있게 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요원은 기혼자라야 하고, 연령이 젊지도 늙지도 않아야 하고 教育의 水準이 高卒 以上은 되어야 한다고 条件을 부쳤고 또 물론 그 地域에 居住 또는 적어도 연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채용된 요원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단기훈련을 실시하여 "가족계획계몽원"이란 명칭으로 소속 읍.면에서 일을 하도록 배치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읍.면요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 보다는 오히려 가족계획의 必要性에 대한 계몽에 치중하여 사실상 많은 우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임방법의 모든 것을 人体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人体에 관한 지식이 보통 상식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고 점차 피임실천율이 上昇함에 따라 의학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능가되게 되었다. 더구나 어떤 종류의 피임방법은 그 당시로 보아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되었던 방

법이어서 아직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던 처지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응용해서 적절히 답변하지 않고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들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니 요원에게 최소한의 의학지식을 注入시켜야 할 필요성이 生起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간호보조원"이란 요원의 명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간호보조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建国 以来 많은 다른 과정들이 그러했드시 여러가지 종류에 이르렀는데 이 당시 가족계획을 위한 간호보조원은 요원의 기존 교육수준을 분류하여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몇개의 다른 과정을 가졌다. 이러한 경위를 갖고 탄생된 간호보조원의 가족계획 읍.면요원은 그 자격이 간호원에 준하게 되자 보건사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의 注視를 받게 되었는데 즉 가족계획사업 뿐 아니라 기타 보건사업의 최종 말단 요원으로서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였다. 다시말하면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읍.면에 요원을 배치했고 이요원들에게 간호지식을 교육시켜 간호보조원을 만드므로서 가족계획외의 기타 보건사업에서도 읍.면에 까지 이르는 요원조직망을 갖고자 계획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결국 가족계획사업이 그 시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원의 읍.면배치를 추진하였던 것이 나아가 기타 보건사업을 촉진하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읍면에서 근무하게 되는 요원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최소한 간호보조원의 자격만이라도 가춘 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종합 4000여명에 이르는 간호보조원

인 보건요원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각종 보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現況

1) 간호보조원의 質

전술한 바와 같이 간호보조원의 시초는 가족계획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후 서독파견을 위한 간호보조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게 되므로서 간호보조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많은 수에 이르렀고 国家考試의 형태로 보사부의 면허를 받는 제도로 까지 발전되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은 가히 간호보조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이 되게 된다.

그러나 왕왕이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이라 할 경우 병원 근무의 환자위주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교육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중보건계통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각 기관이 갖는 교육과정을 직접 분석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간호원 뿐 아니라 의사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예방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보다는 치료위주 환자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더구나,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의 경우와 달라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이 보건, 예방이 아닌 치료위주의 교육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직접 읍면에 배치되어 거의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경우에 그들의 기존지식은 사실상 크게 역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물며 학교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치러 면허를 얻기만 하였을 뿐 실지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들의 지식을 그나마 전혀 活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 요원의 이직율은 대단히 커서 연간 30%내외를 보이고 있어 每年 새로운 요원이 30%는 代替되고 있다고 할 때 신규요원의 지식의 未洽을 문제가 안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가족계획연구원의 수용능력은 每年 겨우 신규채용된 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않아 훈련차출이 될 때 까지는 그들의 지식은 거의 活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요원들의 지식의 未洽은住民들의 不信의 원인이 될수 있고 그러지 않아도 年令이 어려서 갖는 핸디캡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요원들은 한층 더 어렵고 위축되는 현상을 가질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

2) 업무분야

요원의 기술적인 지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처지에 이들의 지식이 한층 퇴보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다. 아니 어쩌면 기왕에 부족한 지식이므로 오히려 주어진 업무가 기술적이 아닌 편이 이요원들에게는 편리하고 구원이 될 수 있으려는지도 모른다. 즉 요원에게 주어진 업무의 대부분이 기술적인 대민봉사(対民奉仕)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통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각종 기록부요

보고서 들이다.

어떤 종류의 일이던간에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사업의 중요성이 평가되는 것은 보통이다. 이런 예산은 물론 수치로 표시가 되고 수치로 표시를 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위해 얼마"라는 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위해 목표숫자가 필요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1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다면 무엇을 몇개를 하기 위해 10만원이 필요한 것인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에는 의례히 목표량이 많게 마련이고 이 목표량 때문에 많은 요원이 고통속에서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또 이런 사업예산서가 作成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使用이 되었고 현재 몇%나 완료가 되었고 등등으로 그時그時 이에 対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요원들의 업무는 우선적으로 서류를 기입 보관하고 이를 집계하여 每月末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対民奉仕사업은 질적으로 좋은 사업이고 真正한 뜻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은 숫자로 표현되기는 어렵다. 때로 길가에서 어머니를 만나 피임방법의 부작용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20분 30분을 걸려 아는 지식 全部를 털어서 얘기를 해주고 돌아왔다 하여도 이런일은 숫자로 남지 않고 설혹 남았다 하더라도 "어머니와의 대화 1건"으로 남을 뿐 그것이 30분을 소모하며 心血을 기우려 친절을 배풀었던 일로 서류에 남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한다면 월말 보고서

는 기한이 있어서 月末안에 제출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심한 독촉을 받게 마련이니 결국, 대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보고서를 쓰는 사업에 치중을 안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모든 것은 숫자로 기입되어 계산이 되어야 하니 배풀었던 친절은 기입할 도리가 없고 결국 보고서 위주로 볼 때 사업을 숫자 위주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평가 하는데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문명이 가져온 큰 폐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감정은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父母에게 孝道를 하는것은 숫자로 표시될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실로 마음을 써주는 것 역시 숫자로 표현이 되지는 않는다. 열치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것과 같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될텐데도 불구하고 과학문명을 토대로 하는 현대문명은 모든 것을 숫치로 재려한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한번에 평가를 받으려면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밖에는 없다.

요원이 소속읍면의 주민들을 위해 真心으로 한 사업들도 모조리 숫자로 보고서식에 의해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 숫자의 다과(多寡)에 의해 "나"의 업적이 평가된다. 더구나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예산을 승인한 중앙관청 부터 요원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읍면의 행정요원 까지 전원이 다 "행정요원"이다. 철저하게 숫자로 표시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행정가 인 것이다. 피임의 부작용에 대해서 친절히

얘기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다만 숫자가 필요한 행정가인 것이다.

이렇게 요원의 많은 시간을 기록 보고에 빼앗겨야 하고 이럴 경우 기록의 내용이나 질에는 크게 관심이 없게 되기 일수다. 일차적으로 중앙의 요구가 그렇고 둘째로는 감독자들이 기술적인 면은 모르는 사람이니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모르니 그렇고 또 자신들이 직접 그일로 주민들의 호소를 듣고 있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 요원들의 질적사업을 위해 그간 많은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우려 되도록 기록이나 보고서등에 의해 소모되는 시간을 강하기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런 상태를 一進一退 별로 큰 게혁을 가져왔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요원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活用이 안되므로서, 지식은 그나마 날로 퇴보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가족계획사업을 혹평을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여성을 차에 태워 불임시술의 대상자로 확보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 분명히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까지도 때로는 눈앞의 목표량 때문에 그들은 人間이 아니고 숫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까지 내앞길이 다급한 것이다. 그럴 경우 무슨 기술적인 지식이 그리 필요하겠는가. 가족계획사업은 이렇게 해서 기술적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여야 할만큼 사실상 많은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사업의 사후관리사업 보다는 목표량달성을 우선

하고 있는 처지여서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지도감독

읍면요원의 지도감독은 그 양상을 보면 각양각색임을 알 수 있다.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뿐아니라 근무장소도 때로 면사무소이기도 하고 때로 공의가 있던 없던간에 보건지소이기도 하는 등 각색이어서 그러한데 그중에서도 가깝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면의 가족계획담당자이다. 읍면에서는 부읍면장관리하에 있어 역시 모든 사람이 행정가들이다. 보건사회부가 원하기는 군보건소의 선임지도원이 해당 읍면요원을 지도감독해 주기 바라고 있고 군보건소의 훈련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업무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상 군보건소의 선임지도원이 읍면요원을 지도감독 내지는 훈련할 수 있는 실정에는 있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것이 금번 실시한 "군보건소 선임지도원 보수훈련 사후훈련"과정을 통해 보면 7개 시범지역 중 그나마 계속 지도감독 내지는 훈련을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 그러한 경우 기술적인 지식의 전달보다 목표량 달성이나 보고서 독촉등이 주업무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러한 상태는 사도의 경우도 또 보건사회부의 경우에도 같아서 사업의 질向上을 추구하는 경우은 전무하다 할 수 있고 오히려 보고서 집계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원들은 자신들의 의학적 내지 기술적 지식의 향상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 연구원에서 받았던 훈련내용은 결국 겉도는 노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 해결방안

1) 목표량제도 전면폐지

목표량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목표량은 경제계획원과 보건사회부간에 한해 둘 수 있는데 향후 그 표현방법을 달리해야 할 必要가 있다. 가족계획사업에서 권하고 있는 몇종의 피임방법을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장점이 많고 결정이 적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들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그중의 어떤 방법이 얼마나 되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는 등의 계산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방법의 피임법을 사용하던간에 피임이 되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천하는 방법만이 최고인 것은 아니고 나름데로 자신에 맞는 방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뜻에서 목표량 운운의 사업은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업이고 그 보다는 가임여성이 몇명 또는 인구가 몇명인데 연 출생율이 얼마였다는 숫자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 충분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현재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출생율도 알 수 있게 되고 피임도 가능하여 바로 一石二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정부는 불과 몇종의 방법에만 집착을 하여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잡아매어 놓으면서 오히려 不信감을 사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터놓으므로서 요원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어떤 방법이던 피임방법과 연결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자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가족계획 뿐 아니라 住民을

위해 모든 보건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고는 住民의 協助를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서 요원이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이어야 한다는 의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보급방법이 계속된다면 요원은 굳이 기술자일 필요가 없고 차라리 권리도 영향력도 있을 면직원이 권장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편이 방대한 예산의 낭비를 안하고도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가 없이 고식적인 시정책만 가지고는 이제까지의 전철(前轍)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출생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요원의 실적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代替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서식 보고서통합

금번의 웍쌉의 다른 하나의 주제로 사업통계 보고서에 관한 문제점이 언급될 것으로 생각되나, 모든 기록부나 보고서를 가족계획만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기왕에 기타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면사무직원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보고서는 반드시 간호보조원이 기입해야 할 만큼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또 보고서는 행정에 익숙해져있는 행정요원이 기입 보고하는 편이 능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요원들은 주민을 위한 보건문제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야 말로 간호보조원으로서의 요원의 필요성은 뜻이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요원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전술한 "선임지도원 보수훈련"에서 요원들에게 실시했던 20개의 시험문제중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온 것이 먹는 피임약의 부작용의 하나를 응용한 문제였다. 조금만 방법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면 응용이 안될 정도로 그들의 지식은 분명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웠다 하여도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에 발전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기술"과 "행정"이 왕왕이 상치되는 경우가 있고 상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술요원을 기술요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행정적인 일에 활용을 하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뜻이 있어서 간호보조원을 채용했으면 그지식을 활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 분명하다.

3) 기타 시정방안

가. 대중메스콤 활용

요원들의 업무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과 피임방법 소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또 나아가 피임방법을 실천한 후의 사후관리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적어도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을 전국에 퍼져 있는 TV나 라디오의 활용이 좀더 활발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TV나 라디오의 영향력은 놀랄만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의 보급은 구태일연하게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가정방문의 방법으로 대부분이 이루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TV나 라디오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 TV나 라디오는 사업을 역행하는 내용물을 싣고 있는것을 본다 . 또 반상회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계몽을 위하여는 家家戶戶 (가가호호) 의 방문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

나 . 시술의사제도 , 시술비제검토

시술의사지정제도의 제검토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있고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은 목표량을 매어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게 판매를 해서 요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 현재 먹는 피임약은 시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KNCC에 의해서도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므로 먹는 피임약의 공급량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마땅함은 물론인데 사용자의 기호를 무시하고 숫자에만 의한 목표량의 설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

다 . 사후관리사업

목표량의 과중 때문에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하고 그 대상이 시술을 한 후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살아도 좋다는 좁은 시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더구나 피임방법을 권할 때의 다급함에서 왠만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피시술자의 원망은 한층 클 수 있다 . 제아무리 목표량에 쫓긴다 하더라도 내몸이 아니고 네몸이니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권유라면 그러한 일은 하루틀 살아 갈 수는 있어도

이틀도 못살아가는 사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은 질적으로 低質이 되어야 하고 요원은 住民의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자세는 거슬러 올라가 国民의 対政府 不信感을 자아내는 결과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런 사후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간호보조원이 요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 요원의 양성화및 보수

요원의 양성화 문제는 요원자신들은 물론 이 분야의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긴 세월을 둔 宿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결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의례히 요원들과의 모임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년에 두번씩이나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心理的으로 불쾌하다는 것이다.

보수 또한 그러하여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수가 적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식공무원이 되고 보수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렇지 못하다하여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할때 이미 알았을 것이 분명하고 특별히 불만을 할 것은 없어야 한다. 일을 위주로 생각한다 할때 "요원"이라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되었다. 하여서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권리" 와 "의무"의 문제 나아가서는 요원의 사업이 住民을 위한 下向性의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月末이면 보

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고작인 上向性의 사업이었는가 등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요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한다는 뜻에서 성실하게 住民을 위해 사업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본인이 긍지를 느끼는 것은 물론 住民의 존경과 절대적인 支持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임시공무원의 身分으로 1년에 두번 임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세번 네번 받아야 했었다하더라도 재임명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필요한 存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지하게 사업을 真正 住民의 복지를 위해 할 수 있었다면 설혹 달성했어야 할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크게 꾸지람을 들었을 理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 요원의 입장에서도 달성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라는 時調가 있듯이 우선 자신이 성심껏 모든 일을 해 놓은 후에 권리를 찾는 것이 원칙이리라 생각된다. 真実로 사업에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내용은 그요원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무엇이 必要한가를 소상하게 들고 있을 것이 分明하다. 住民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내 사업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可能하다면 무엇이고 忠足시켜 주어야 겠다는 성의와 使命감이 있다면 직위가 임시직이고 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住民의 존경은 더욱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되었었을 때 어느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느 길을 통해서라도 회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요원은 간호보조원인 것이다. 즉 보건분야에 있어서의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主題 3：一線要員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의　利用과　普及

発表者：金 載 埈，家族計劃研究院　開発部長

1。資料利用의 必要性

要員들이 一線에서 啓蒙活動을 하는 동안 各種 啓蒙資料를 利用하는 것이 사업하기에 얼마나 便利하고 効果的인가는 더이상 強調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特히 家族計劃事業은 価値観과 人間行動의 変化에서 부터 生殖生理등 身體条件의 変化에 이르는 광범위한 領域 即 保健, 医療, 心理, 社会, 教育, 経済등 여러 関聯領域의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고 있어, 보다 多様한 資料의 利用이 절실히 要求된다. 医療 保健에 관한 専門知識이 없는 対像者에게 避姙의 必要性과 使用方法을 啓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啓蒙도보를 準備해야 할 것이며 少子女 価値観을 形成해서 家族計劃을 実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視聽覚資料의 効果的인 使用이 불가피하다. 여러 要員들은 一線 啓蒙活動을 통해 対象者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먹는 피임약의 使用에 失敗하여, 먹는 時期를 놓친다든가 한꺼번에 여러 알을 먹는 것을 経験하고 있다. 또 우리는 人口増加가 심각함을 論的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도 実感하지 못하던 対像者들이 한장의 그림이나 「스라이드」를 통해 금방 理解하는 것을 종 종 볼 수 있다.

사람에게 어떤 事実을 説明하여 行動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各種 視聽覚 資料가 要求된다는 것은 여러 実験結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한 油類会社가 종업원을 対像으로 調査한 人間의 사실을 기억(retain)하는 程度와 能力에 관한 実験結果는 그들이 「읽었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보고 들었느냐」에 따라 현격한 差異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表1에서와 같이 그들이 어떤 資

料를 단순히 읽기만 했을 경우 內容의 10「퍼센트」밖에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比해 소리로 들었을 경우는 20「퍼센트」, 直接 눈으로 보았을 경우는 30「퍼센트」 그리고 보고 들었을 경우는 50「퍼센트」의 높은 水準의 기억이 가능했다고 한다.

表1. 人間의 事実에 대한 기억程度

程 度	內 容
10 %	읽은 것에서
20 %	들은 것에서
30 %	본 것에서
50 %	보고 들은것에서

이 実験結果는 人間이 어떤 事実을 認知하고 理解하기 위해서는 関聯된 資料를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視聴覚効果를 考慮한 多様한 資料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強調해주고 있다.

訓練이나 講演会에서 対像者가 관련된 資料를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그 効果面에서 큰 差異가 나게 된다. 이 경우 강연을 하는 사람은 그 差異를 크게 느낄 수 없으나 강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격한 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経験에 의해 알 수 있다.

2. 適合한 資料의 開発

첫째 生産되는 資料는 啓蒙教育対像에게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 家族計劃 啓蒙対像은 可姙夫婦뿐만 아니라 젊은層과 老人에 이르기까지 모든 年齡에 다 걸쳐 있으며 같은 年齡層에서도 그들의 社会経済的条件이나 教育背景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対像이 어떤層인가 分析되어야 하고 그 分析된 重要한 対像에 따라 適合한 資料가 生産되어야 한다. 가난한 영세민이나 農漁村 사람들에게 사는 環境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都市上流層의 生活実態를 内容에 담은 資料는 使用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율빈 대만등지에서 적은 子女의 가정이 부유하게 산다는 啓蒙弘報資料에서 農村사람들에게는 바나나 과일등 農作物에 관한 것을 都市사람들에게는 교통편 教育問題등을 비유해서 現実生活과 관련된 啓蒙資料를 利用한 나머지 얼마나 좋은 啓蒙効果를 냈는지 잘 알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젊은層에 대한 家族計劃 啓蒙教育이 強調되고 있다면 젊은層에 대한 時代感覚을 알아내서 그들이 요구하는 性教育 여가선용등 새로운 知識과 環境에 맞는 資料가 生産되어야 한다.

요즘 어머니会 会員들의 관심사가 所得増大에서 쾌적한 집안 환경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内容을 담은 資料가 더 호소력을 나타낸다.

둘째 対像의 認知度의 差異를 考慮한 資料開発과 使用上의 注意를 要한다.

쉽게 갈해서 같은 資料나 그림을 두고 저마다 다른 의견과 보는 눈을 가진것이 사람이다. 男女 生殖器나 性教育 資料를 두고 어떤 사람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反해 어떤 사람은 심한 저항을 느낄 수 있다. 地球는 만원이어서 사람이 地球에서 떨어지는 만화를 놓고 어떤 사람은 흥미있는 表現이라고 느꼈는데 比해 어떤層은 人間의 尊貴함을 무시한 만화라고 곱시 불쾌하게 느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그림이나 資料에 대해 느끼는 感覚과 認識程度가 다르므로 이를 考慮해서 大多数가 좋아하는 内容과 表現으로 資料가 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婦人들의 多数가 子女의 性教育의 必要性을 느끼고 많은 関心을 갖고 보다 具體的인 지도 方法을 알기를 希望하고 있는데도 자료제작자가 지나치게 保守的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래스콤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마저 表現하기를 주저한 소극적인 資料를 보급했다면 대상에게 아무런 흥미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対像에게 흥미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너무 노골적인 表現을 일삼는 性教育 資料를 제시했다면 무슨 에로잡지 같다고 해서 불쾌감을 앞세우게 되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全対像을 考慮한 수많은 種類의 資料開発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利用者가 주요한 対像의 特性을 考慮해서 選択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資料의 生産이 要求된다. 대상이 行動化할 수 있게 호소력있는 資料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느끼는 程度가 어느정도인가를 알고 제작한 資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요원들이 少子女 価値観을 강조하는 팜프렛같은 것이 거의 同一한 「아이디어」와 表現方法을 쓰고 있어 이를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덜 効果的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対像에 適合한 資料의 選択과 普及

첫째 生産된 資料를 対像의 特性을 考慮해서 어떻게 잘 選択하여 利用하느냐가 資料 活用上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된다.

資料開発은 모든 対像에게 適合한것을 다 生産한다는 것은 現実的으로 不可能하며 그런 財政的 뒷받침도 어렵다. 그러나 生産된 資料中 対像에게 가장 適合한 것을 選択해서 事業効果를 올리는 것은 可能하다. 資料의 選択과 利用上 考慮되어야할 基本的인 原理를 教育理論에서 따올 수 있다. 資料選択과 普及時에 考慮되어야 할 対像의 心理的 変化過程 即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消極的 態度에서 積極的인 態度에 이르는 変化過程을 8가지 段階로 区分해서 説明해 볼 수 있다. 어떤 事業이든 対像의 階層別 心理状態를 세심하게 살펴서 적합한 内容만이 投入될 수는 없지만 이런 変化過程을 充分히 考慮해서 資料를 제시하면 훨씬 効果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段階; 現 状態에서 전혀 問題意識을 가질 수 없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変化를 일으켜야 할 必要性을 전혀 느끼지 않는 状態이다.

△ 2段階; 어떤 問題 즉 家族計劃実践에 대해 部分的으로 必要性을 認識하지만 問題에 대한 責任이나 解決에 관해 엄두도 내지 않는 状態이다.

△ 3 段階 : 家族計劃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充分히 認識하지만 不信과 可能性에 대해 회의를 가지므로서 行動이 不可能한 狀態이다.

△ 4 段階 : 避姙実践에 대해 잘 理解하고 있으면서도 豫期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副作用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갖는 狀態이다.

△ 5 段階 : 部分的으로 変化를 일으킬 対備를 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 情報를 求한다든지 同僚의 支持나 指導者의 支援을 구하고 있는 狀態이다.

△ 6 段階 : 行動化하는데 약간의 自重을 하고 있는 狀態이다.

△ 7 段階 : 充分한 信念을 갖고 家族計劃을 実践하기 直前의 狀態를 말한다.

△ 8 段階 : 完全 実践狀態로서 自信으로서 他人에게 까지 권고할 수 있는 狀態이다.

以上 提示한 8가지 段階는 사람이나 때에 따라서 表現되지 않은 채 진행되지만 사람의 心理発達이 소극적인데서 적극적인 긍정상태로 변화하는 데는 内面的으로라도 반드시 이 変化過程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一線 啓蒙活動을 하면서 얼마전 퍽 적극적인 態度를 지녔던 対像者가 얼마후에 만나 보았더니 돌변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情報와 자극에 의해 잘 形成되어 가던 그 사람의 態度가 어떤 不適合한 情報와 자극을 받아 변한것을 意味한다. 부작용등 避姙方法의 効果에 관해 믿고 다음 기회에 대비해서 副作用을 지나치게 強調하여 설명했다고 하면 対像者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資料提示에 의한 本格的인 啓蒙에 앞서 예비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이 必要하다.

対話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그 사람에게 어느程度의 깊이 있는 資料로서 啓蒙하는 것이 効果的인가를 判断할 수 있다.

둘째 일단 選択된 資料라도 어떻게 構成해서 普及했느냐에 따라 効果가 달리 나타난다.

家族計劃과 같은 成人啓蒙教育用 資料는 対像 時期 場所등 環境条件에 따라 伸縮性있는 資料의 構成이 必要하다. 資料는 接近方法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構成할 수 있는데 資料 形態別로 나누어 보면 ①만화 「포스터」 「필림스트립」 「챠트」등이며 内容中心으로 나누어 보면 ②医療保健, 人間性 問題 오락中心的인 것이 있으며 ③問題中心으로 제작된것 등으로 多様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와같은 資料의 構成은 指導者의 能力과 指導方法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지만 組織的인 選択과 配合은 보다 좋은 効果를 期待할 수 있다.

여기서 資料構成上의 原則을 몇가지 열거해 보면,

첫째, 成人들의 習得意慾과 動機誘発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資料를 多様하게 構成해야 한다.

둘째, 対像者의 特性과 与件을 고려하여 時間調整이 可能해야 한다.

세째, 自習用 資料이면서 同時에 集団 教育用으로도 변형할 수 있는 形態로 構成되어야 한다.

네째, 教科書式의 인쇄물보다는 짧은 時間内에 부담없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内容으로 構成한다.

다섯째, 成人의 社会的 心理的特性을 考慮하여 実際的이고 実用的

인 問題中心으로 構成한다.

여섯째, 內容의 表現樣式은 可能한한 具體的이며 写実的인 用語와 그림등을 많이 첨가시켜 多樣하게 構成한다.

일곱째, 복잡한 조작을 要求하는 資料는 指導者의 教育負担을 줄이기 위해 排除한다.

여덟째, 成人의 要求 및 興味에 符合되는 「프로그램」을 包含시킨다.

아홉째, 成人의 特性과 要求등에 따라 융통있게 적용할 수 있게 「부페」형식 (Buffet Style)으로 構成한다.

4. 資料 活用 方案

資料의 効果的인 活用方案은 資料의 選択, 構成 普及方案과 관련되므로 이미 누누이 지적되었다. 教育効果面에서 考慮되는 活用方案에는 啓蒙教育内容과 状況에 따라 여러가지 資料를 統合해서 復合的으로 活用하는 方案과 開発된 全體資料中 参加者의 特性과 教育状況을 考慮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資料간을 選択해서 活用하는 2가지 方案이 있다. 前者의 復合資料 活用方案은 여러 学門領域과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는 人口 家族計劃 啓蒙教育에 効果的이며, 後者의 「부페식」 「패키지」 「프로그램」은 自律的인 習得이 可能하다는 것이 特徵으로서 集団状況이 아닌 自律的인 環境에서도 対像者에게 本来 目的한 바를 정확하게 伝達할 수 있는 長点이 있다.

끝으로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用으로 生産 普及되고 있는 各種 資料의 目録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계몽교육자료 목록

〈가족계획연구원〉

·교 재

이여옥역	먹는피임약사례집	1971	142면
이여옥역	자궁내장치 사례집	1971	132면
이희영	정관절제술에 관한 연구	1971	181면
김태룡	모성보건의 실제	1973	129면
정경균	가족계획계몽교육원리	1973	128면
김용완공저	수태조절법	1974	291면
김용완	수태조절법개요	1975	27면
한대우	한국가족계획사업의 개관	1977	33면
	및 사업진단		
박동서	가족계획사업 집행책임자의 역할	1977	10면
황인정	가족계획사업의 관리체계 분석	1977	23면
김광웅	가족계획연구의 경험적	1977	17면
게일·디·네스	분석결과		
한대우등저	행정관리의 과학적접근	1977	230면
KIFP	가족계획교본	1970	268면
KIFP	가족계획자습교본	1970	141면
KIFP	가족계획 : 요원훈련용교재	1972	153면
KIFP	가족계획의 실재	1973	111면

KIFP	교육방법론	1974	8면
KIFP	성교육	1974	9면
KIFP	보건교육	1974	13면
KIFP	레크리에이션지도 방법	1975	6면
KIFP	공중보건	1975	6면
KIFP	보건소활동	1975	14면
KIFP	새마을운동	1975	14면
KIFP	도표로 본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1975	50면
KIFP	우리나라 인구문제와 출산력	1975	17면
KIFP	세계인구 및 가족계획실태	1975	5면
KIFP	가족계획방법 : 자습교본	1975	149면
KIFP	자궁내장치 및 먹는피임약 사례 연구집	1976	74면
KIFP	인구와 가족계획	1977	64면
KIFP	가족계획과 행정관리	1977	143면
KIFP	인구·보건·수태조절법	1977	97면
KIFP	해뜨는집	1977	5권
KIFP	인구 및 가족계획주요통계	1978	24면
KIFP	인구문제	1978	132면
KIFP	남성불임술 : 이론과 사례	1978	43면
KIFP	모자보건사례집	1978	168면
KIFP	한국출산조절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1978	61면

KIFP	여성불임술	1978	121면

<슬라이드>

보건교육	12매, 인공임신중절	2매
자궁내장치	41매, 월경주기법	4매
성교육	97매, 인구문제	11매
정부가족계획사업	50매, 가족계획	5매
난관결찰술	16매, 미니랩	62매
임신과 출산	33매, 남자불임술	77매
피임의 원리	13매, 인구와 가족계획	30매
먹는피임약	11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67매
루우프 피임약	11매, 육아	72매
정관수술	20매, 기생충의 피해	90매
월경주기법	7매, 오늘의 성교육	79매
콘돔피임법	7매, 영양과 건강	77매
세계인구	22매, 모성보건	77매
인구문제	51매, 결핵관리	73매
난관수술	13매, 농촌생활과 건강	67매
성병관리	79매, 행복한 가정	59매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81매	
여성의 신비	62매, 인구조절정책	62매

< 시술영화 >

복강경시술	Color	16 mm
IUD시술	Color	16 mm
정관시술	Color	16 mm
미니랩시술	Color	16 mm

< 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 >

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편 인구문제	1976	228 면
고려대학교 인구교양강좌	1976	82 면
홍성봉 인구 및 가족계획	1975	184 면
고대인구교육위원회 인구폭발과 미래	1978	167 면

< 노동청 >

노동청사업장 근로가족 복지사업훈련교재(I)	1975	121 면
노동청사업장 근로가족 복지사업훈련교재(II)	1975	75 면

< 대한가정학회 >

대한가정학회 가정학과 가족계획교육	1974	86 면

< 대한교육연합회 >

대한교육연합회 학교와 인구교육	1973	307 면

〈대한가족계획협회〉

교 재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I)	1963	56 면
PPFK	가족계획교재	1964	91 면
PPFK	가족계획지도지침	1964	95 면
PPFK	가족계획지도원교재	1966	266 면
PPFK	인구	1968	18 면
PPFK	가족계획선임지도원교본	1967	220 면
PPFK	가족계획선임지도원교재	1968	195 면
PPFK	군간사요원교재	1968	263 면
PPFK	가족계획자습교본	1968	2 권
PPFK	보건요원훈련교재	1969	260 면
PPFK	가족계획교본	1970	268 면
PPFK	가족계획어머니회요원교본	1971	140 면
PPFK	가족계획과 새마을운동	1971	87 면
PPFK	사랑의 성교육	1971	303 면
PPFK	그림으로본 가족계획	1976	10 장
PPFK	전임강사 및 군간사자료	1977	140 면
PPFK	가족계획홍보교육편람	1974	223 면
PPFK	피임가정보급촉진교본	1976	133 면
PPFK	가족계획사업 참고자료	1977	55 면
PPFK	한국가족계획사업의 과거, 현재, 장래	1977	26 면

PPFK	가족계획사업의 저해요인과 대책		16 면
PPFK	가족계획사업의 사회적제측면	1978	132 면
PPFK	인구문제의 22 개차원	1978	68 면
PPFK	완전피임원리에서 낭설까지	1979	54 면
미틀톤, J. &린, Y. H., 가족계획홍보교육사업기획, 1977			109 면
데콜스 J. R.	인간과 인구	1977	152 면
양재모공저	가족계획교본	1966	
김용완공저	먹는피임약교본 (제 1 부)	1967	52 면
신한수공저	자궁내장치	1969	18 면
이희영	남자불임술	1966	159 면
이희영	남녀불임증의 원인	1967	46 면
엘리키히, 포올	경제개발과 가족계획	1971	60 면
엘리키히	인구자원환경의 위기	1974	15 면
히커슨, F. J. 훈련담당자를 위한 자습서		1977	187 면
킨케이트 D. L. &슈렝 W. 의사전달의 원리		1977	95 면

< 슬라이드 >

임신과 출산	33 매	피임의 원리	24 매
루우프피임법	11 매	정관수술	20 매
월경주기법	7 매	콘 돔	7 매
난관수술	13 매	월경조절법	5 매

가족계획과 인구문제 16 매

나는 왜 가족계획을 해야 하는가 45 매

생명의 탄생	49 매		

〈계몽영화〉

가족계획	B／W	16㎜	1969
웃음찾은 신씨댁	B／W	16㎜	1969
행복의 계단	B／W	16㎜	1969
3・3・35	B／W	16㎜	
엄마의 휴일	B／W	16㎜	1969
딸 3 형제	B／W	16㎜	
내일의 행복	B／W	16㎜	1971
오늘을 사는 지혜	B／W	16㎜	1973
설화리 어머니회	Color	16㎜	1970
탐스러운 열매들	Color	16㎜	
생명의 신비와 현명한 선택	Color	16㎜	1974
인구대회	Color	16㎜	1974
인구폭발	B／W	16㎜	1969
세계인구의 해	Color	16㎜	1974
딸이 더좋아	Color	16㎜	1975
사람・사람・사람	Color	16㎜	1975
Happy Family	Color	16㎜	1975
행복의 문	Color	16㎜	1979

< 문교부 인구교육 중앙본부 >

문교부 인구교육중앙본부, 인구교육 이념의 기초	1975	300 면
문교부 인구교육중앙본부,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인구교육 연수지침서	1977	77 면
문교부 인구교육중앙본부, 인구교육 교원연수교재	6 권	
강우철,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	1975	
고갑석 인구기초	1975	
김수일 초·중등학교 인구교육내용 개요	1975	
김안제 인구와 환경	1975	
김영태 한국의 인구정책방향		
모수미 가족계획의 질적향상과 가족계획	1975	
박래영 인구와 경제	1975	
송건용 가족계획	1975	
신극범 각국의 인구교육동향	1975	
안계춘 세계인구의 현황과 전망	1975	
이경식 인구교육의 의의 영역 및 접근방법	1975	
정경균 인구와 사회	1975	
한상복 인구와 에너지 및 인구생활의 질	1975	
홍재웅 인구와 보건	1975	
이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인구교육	1975	
임병기 과학과 교육과정	1975	
이옥림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인구교육	1975	
김난수 고등교육과 인구교육	1975	

이은진 성인교육을 통한 인구교육	1975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권태환편 인구와 생활환경	1977	196 면
서울대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한국과 사회	1978	4 권.

〈연세대학교 인구교육연구위원회〉

김난수 교육의 사회적 기능	1975	14 권
김난수 학과의 교육적의의	1975	27 면
김난수 성격지도 협조방안	1975	9 권
한국교육학회 학교와 지역사회	1975	12 권
안계춘 우리나라의 인구현황	1975	7 면
이경식 인구교육	1975	22 면
이성진 가치관 차원의 탐색	1975	7 면
김난수공저 인구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		
최신역 전통적 가족제도와 현대가족의 비교	1975	3 면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1975	5 면
모수미 가정생활의 질적향상과 가족계획	1975	8 면
김모임 계획된 변화의 한 사업으로서의 가족계획	1975	6 면
김난수 표집조사	1975	9 면
에드워드 올슨 지역사회조사	1975	4 면
고갑석 인구조사의 기초	1975	15 면

〈이화여대 인간발달연구소〉

이화여대 인간발달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1971	247 면
박준희 자녀의 성교육	1974	9 면

〈이 대 한국문화연구원 인구교육연구실〉

이대 인구교육연구실, 인구와 미래	1975	542 면

〈이대 여성자원개발연구소〉

김주숙 대학생과 인구문제	1974	41 면
이동원공저 · 사회학에 있어서의 인구교육	1974	7 면

〈한국교육 개발원〉

교 재

KEDI 국민학교 인구교육자료집	1976	6 권
KEDI 중학교 인구교육자료집	1976	8 권
KEDI 고등학교 인구교육자료집	1976	16 권
김수일공저 인구분석		
김수일공저 인구변동과 경제성장	1976	213 면
김수일공저 인구변동과 경제성장	1976	142 면
김수일공저 인구성장과 환경관리	1976	139 면
김수일공저 가족생활과 모자보건	1976	201 면
김수일공저 인간생식	1976	161 권
김수일공저 인구 및 환경교육	1975	314 면

박 헌	교사용 인구교육지침서	1974	60 면
신금범	인구교육	1975	385 면
신세호	환경교육	1977	546 면

<슬라이드>

인구분석 94 매 인구변동과 경제성장 90 매

인간생식 180 매 가족생활과 모자보건 130 매

인구증가와 사회발전 151 매

인구성장과 환경과리 91 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총가족계획사업요원 훈련교재 144 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교 재

KIRBS	인구와 인류의 장래	1976	20 면
KIRBS	인구와 사회발전	1976	24 면
KIRBS	자녀와 가정의 행복	1976	20 면
KIRBS	올바른 자녀관	1976	32 면
KIRBS	새롭게 사는길	1976	24 면
KIRBS	성과 생활	1976	44 면
KIRBS	인구증가와 자연의 파괴	1976	56 면
KIRBS	인구문제의 기초	1976	56 면

KIRBS	내일을 위한 설계	1976	6 Set
KIRBS	가족계획방법	1976	Pamphlet
KIRBS	성인인구 교육과정개발	1976	45 면
KIRBS	성인인구 교육과정개발 : 현장적용 가능성 검증	1976	50 면
KIRBS	성인인구교육과정개발 : 그 사고와 접근방법	1976	25 면

< 슬라이드 >

第 3 章　　討　　議

第 1 分科

主　題：事業管理　指導監督

座　長：趙南勳（家族計劃研究院）評価部長

参加者：신해식　공세권（各班座長）

고옥자　김영자　이덕희　이정희　장지섭　홍순배　김공대

서정순　홍인숙　권순인

家族計劃事業이　着手된지　18 년이란 긴　年輪이　흐른　尙今에　이르기　까지　指導監督의　定義，內容，方法等에　관한　具体的인　指針이　開発되지　못하여　指導監督　自体의　많은　問題点을　지니고　있는것은　事実이다．

現実情에서　具体的인　問題点들이　다음과　같이　指摘　되었다．

問　題　点

1．過去　人口　比例에　依한　要員　配置를　地域特性에　맞게　配置되어야　한다．

2 . 避姙方法別 実績評価 為主로 実施하고 있는 評価方法을 止揚하고 地域実情에 맞는 評価方法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

3 . 指導監督 指針이 없다 .

4 . 保健所 指導監督 実務者에 대한 特殊訓練課程및 機会不足으로 因하여 伝達教育講師要員의 資質이 낮은 実情임 .

以上의 問題点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建議事項이 提示 되었다 .

建議事項

1 . 人口比例에 依한 要員配置方法을 止揚하고 人口急増 地域 , 新設保健所 , 可姙女性分布 , 避姙実積 , 副作用発生等 地域特性을 考慮하여 要員을 配置 해주기 바라며

2 . 要員 個個人의 実績만을 評価하지 말고 事業의 不振事由와 問題点이 무엇인지 하는것등을 考慮한 評価方法이 바람직 하다 .

3 . 要員의 職務分担을 制定하여 家族計劃 実施要綱에 明示 바람 .

4 . 要員 現地 職務訓練方案의 講究

5 . 指導監督用 「 책크리스트 」(Check List) 開発普及

6 . 各地域의 指導監督 実施状況을 記録 維持하여 要員이 移動하드라도 容易하게 地域実情을 把握할 수 있도록 화일 시스템 (File system) 을 開発 普及

7 . 指導監督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 세미나 」및「 웍숍 」을 随時 開催要望

8 . 現地 職務訓練을 위한 伝達講師 要員 訓練要望

第 2 分科

主　題：保健要員의　資質向上　問題

座　長：金貞泰（家族計劃研究院　訓練部長）

参加者：정영일　박기준（各班座長）

최창혜 신은규 최영실 조홍식 박옥진 박혜자 박풍자 김춘자 강희두

保健要員의　資質問題는 訓練및　事業과　直結되는　문제로　重要視되고 있으나　近年에　와서　保健要員의　年間　退職率이　31.0「퍼센트」로 訓練対象人員은　急增　하고　있는 実情이다.　그러나 訓練収容能力은 限定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多幸이도　政府는　1980年度에 세계은행(IBRD) 人口借款事業計劃으로　当研究院의　訓練施設拡張과　装備現代化計劃이　包含　되어　있어　工事가　끝나는　1981年度부터는 訓練人員을　增加시킬　수　있을것으로　期待된다.

問　題　点

1. 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中央및　地方　自体訓練이　強化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実情이다.
2. 市.道単位 地方自体訓練을　위한　指針書가　없다.
3. 要員　任用資格　基準上　未備한　点이　있어　適格者　任用이　困難하다.

建　議　事　項

1. 保健所에서　每月　実施하고　있는　月例会 議時 自体訓練을　実施할 수　있도록　訓練内容과　範囲를　提示해주고　講師手当을　支援해　주실　것과
2. 市.道単位로　分期別　「세미나」形式의　補修訓練方案을　研究開発하

여 技術과 豫算을 支援해 주실 것,

3 。要員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스스로 探究할 수있는 動機 賦与를 위하여 定期刊行物 또는 教育資料普及 要望。

4 。要員 訓練時 一般啓蒙教育도 重要하지만 副作用 発生時 応急処置 問題를 補完해줄것

5 。長期勤続者에게 上位의 資格取得機会를 賦与해줄수 있는 方案講究要望 (例 : 看護補助員이 助産訓練을 받을수 있는 機会)

6 。地方自体訓練을 위한 視聴覚資料 (스라이드) 普及 要望

第 3 分 科

主 題 : 一線保健要員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의 利用과 普及

座 長 : 金載埈 (家族計劃研究院 開発部長)
홍문식 문현상 (各班座長)
안경희 조명자 강희자 설혜자 최순애 박복자 박영애 정부질
정윤칠 이봉우

家族計劃事業은 価置観과 人間行動의 変化에서 부터 生殖生理등 身体条件의 変化에 이르는 広範囲한 領域의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고 있어 보다 多様한 資料의 利用이 절실이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料의 普及은 一線事業遂行上 必要로 하는 需要를 充足시켜주지 못할뿐만아니라 内容面에서도 変遷하는 社会。文化経済的인 諸与件과 附合되지 않아 死蔵되고 있는 資料를 許多히 볼수 있는 実情이다。

問 題 点

1．事業診断에 必要한 対象者 実態把握 様式의 重複과 複雜

2．既配布된 啓蒙資料의 内容未洽

3．多目的 保健事業을 為한 器資材의 不足

4．要員의 資質을 向上시키는데 必要한 諸資料의 不足

建 議 事 項

1．事業診断様式을 簡単하게 하여 可及的 오래 使用토록하고 全国的으로 統一을 期할수 있도록 해주실것

2．새마을 건강기록부와 家族計劃相談記錄部를 一元化 해줄것

3．啓蒙資料와 施術後 事後管理用으로 区分 製作要望

4．集団啓蒙用 괘도를 「스라이드」로 바꾸어 주기 바라며

5．既配布된(保社部製作) 図報의 内容을 多様하게 補完하고 鮮明한 色과 뚜렷한 活字로 바꾸어 주실것

6．各種 公式化된 統計資料를 家族計劃 消息等에 揭提해줄것

7．農漁村 啓蒙資料로 「앰프」용 「카세트」 録音「테이프」 普及要望

8．要員 資質向上을 위하여 새로운 情報와 知識을 담은 小冊字 또는 刊行物의 普及要望

9．多目的事業을 為한 器資材의 普及 (例：체온기，체중기，혈압기 청진기，신장기등)

第 4 章　結 論 (要 約)

1 . 事業管理　指導監督

가 . 指導監督　指針　및　様式　開発普及

(1) 市・道　専担및　先任指導員　業務分掌을　制定하여　家族計劃 実施要綱에　明示

(2) 指導監督　「체크리스트」(Check List) 開発普及

(가) 市・道　専担指導員用

(나) 市・郡・区　先任指導員用

(다) 市・郡・区　一般指導員用

(3) 各地域 (要員) 別　화일　시스템 (File System) 開発普及

나 . 指導監督者에　대한　特殊訓練

(1) 市・道　専担및　先任指導員에　대한　年例「워生」開催

2 . 保健要員의　資質向上

가 . 要員補修訓練

(1) 地方訓練　開発

(2) 月例会議時　使用할수　있는　学習　指導内容의　開発支援

(3) 職務訓練 (on the Job Training)　指導内容의　開発普及

(가) 新規　任用者　事前訓練

(나) 基礎訓練　履修者　事後訓練

나 . 自体教育을　위한　学習内容및　資料支援

(1) 正期刊行物　또는　教育資料普及

(2) 公式化된 各種 統計를 家族計劃消息에 揭提

3. 資料의 利用과 普及

가. 書式의 補完

(1) 새마을 健康記錄簿와 家族計劃相談 記錄 書式內容의 重複

나. 啓蒙 資料 普及

(1) 家族計劃 스라이드및 기타 資料 製作 普及

(가) 避姙方法別

(나) 施行後 事後管理(注意事項, 副作用等)

(2) 保健事業用 스라이드 製作普及

(가) 母子保健 (나) 応急処置 (다) 性病管理

(마) 公衆保健관계 資料

(3) 카세트 테이프 製作 普及(대중가요가 담긴 계몽자료)

(4) 既配布(保社部製作)된 図報를 鮮明한 色과 뚜렷한 活字로 補完하여 普及

다. 要員 資質向上을 위한 資料

(1) 要員 自身이 보고 資質을 向上시킬수 있는 휴대용 소책자

(가) 새로운 情報

(나) 專問知識이 담겨진 책자

라. 기자재보급

(1) 多目的 保健事業을 수행함에 필요한 最小限의 기자재 보급(체온기, 체중기, 혈압기, 청진기등)

附　　錄

參 加 者 名 單

웍샵　프 로 그 램

參 加 者 名 單

1 .市 .道專担指導員	姓 名	소 속
	고 옥 자	서울특별시
	안 경 희	부산직활시
	김 영 자	경기도
	최 창 혜	강원도
	설 혜 자	충청북도
	조 명 자	충청남도
	최 영 실	전라북도
	이 정 희	전라남도
	이 덕 희	경상북도
	신 은 규	경상남도
	강 희 자	제주도
	(11명)	

2 .市 .郡 .区保健所 先任指導員		
	박 옥 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박 풍 자	부산직활시 북구
	박 복 자	경기도 안양시
	홍 순 배	강원도 정선군
	서 정 순	충청북도 청원군
	김 춘 자	충청남도 공주군
	박 영 애	전라북도 전주시
	정 부 질	전라남도 나주군

박 혜 자	경상북도 영천군	
김 공 대	경상남도 거제군	
홍 인 숙	제주도 북제주군	

(11명)

3 . 保健社会部

심 달 섭	보자 보건 관리관	
신 해 식	가족계획 담당보좌관	
박 기 준	가족계획담당 보좌관실 . 사무관	
정 윤 칠	〃	
최 순 애	〃	

(5 명)

4 . 家族計劃研究院

김 택 일	원 장	
이 시 백	부 원 장	
김 정 태	훈련부장	
조 남 훈	평 가부장	
김 재 준	개 발부장	
홍 문 식	교육개발	담당
공 세 권	종합평가	담 당
장 지 섭	훈련지도	담당실
정 영 일	교육개발	담당실
조 홍 식	교학과장	
권 순 인	문헌정보	담당실
강 희 두	교육개발	담당실
이 봉 우	훈련지도	담당실

(13명)

計 40명

日 程 表

11월 22일 (목)

09:30 ~ 10:20 참가자 등록

10:30 ~ 11:00 개회식

개회사 : 김택일 (가족계획연구원 원장)

치 사 : 심달섭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관리관)

11:00 ~ 11:20 휴 식 (사진촬영)

11:30 ~ 12:20 정부가족계획사업방향

신해식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담당보좌관)

12:30 ~ 13:20 중 식

13:30 ~ 15:00 주제발표

주제 1 : 사업관리지도감독

조남훈 (가족계획연구원 평가부장)

주제 2 : 보건요원의 자질향상

김정태 (가족계획연구원 훈련부장)

주제 3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과 보급

김재준 (가족계획연구원 개발부장)

15:00 ~ 15:20 휴 식

15:30 ~ 17:20 분과토의 (1 차)

제 1 분과 : 사업관리지도감독

A 반 : 좌장 신해식 (보건사회부 가족계획담당보좌관

B 반 : 좌장 공세권 (가족계획연구원종합평가담당)

제 2 분과 : 보건요원의 자질향상

A 반 : 좌장 정영일 (가족계획연구원교육개발담당실)

B 반 : 좌장 박기준 (보건사회부 가족계획담당보좌관

제 3 분과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과 보급

A 반 : 좌장 홍문식 (가족계획연구원 교육개발담당)

B 반 : 좌장 문현상 (가족계획연구원 인구역학담당)

17:30 ~ 18:30 간담회

11월 23일 (금)

분과토의 (2 차)

제 1 분과

주제 1 : 사업관리지도감독

좌 장 : 조 남 훈

토의자 : 제 1 분과 A . B 반

제 2 분과

주제 2 : 보건요원의 자질향상

좌 장 : 김[illegible]정 태

토의자 : 제 2 분과 A . B 반

제 3 분과

주제 3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과 보급

좌 장 : 김 재 준

토의자 : 제 3 분과 A . B 반

11:00 ~ 11:20 휴 식

13:00 ~ 13:50 전체토의 (분과토의 결과발표)

좌 장 : 신 해 식

발 표 : 제 2 차 분과토의 좌장

14:00 ~ 15:50 중 식

전체토의 및 건의

좌 장 : 이 시 백 (가족계획연구원 부원장)

16:00 ~ 폐 회